

便所百科事典

清潔한 집의 鍵!

森園建築 代表 尹太鉉

1. 말하기 꺼리는 것이지만
2.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3. 便所·便器의 傑作史
4. 生活속의 便所
5. 大小便의 生態와 正體
6. 惡臭와의 對決
7. 깨끗한 집을 가지려면

1. 말하기 꺼리는 것이지만

便所 하면 爲先 先入感이 좋지 않다. 마치 보기 싫은 사람이나 乞人을 대하듯 멀리하고 말하기조차 꺼려한다.

그러나, 생각하면 이보다 더 必要하고 없어서는 아니되는 것은 없다고 본다. 제아무리 便所를 賤待하더라도 하루라도 여기를 訪問하지 않고 견디겠는지 反問하고 싶다. 어느 意味로선 오히려, 居室이나 食堂 보다도, 우리 生活와 密着한 곳이 바로 便所가 아닐까?

그런데 늘 相對하면서도 情이 들지 않으니 골치꺼리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氣分으로 갈 수 있고 반가이 맞아주는 곳이 될까, 누구나 바람직한 일인데도 別로 關心이 없는 것 같으니…… 이는 關心은 고사하고 아주 내버린 狀態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좀 親해 볼까 하다가도 들어서면 우선 그 냄새에 기겁을 하게 된다. 아마 10명이면 9名 相을 찌푸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무척대고 더럽다, 깨끗하다, 보기 싫다 등등 不滿으로 便所를 멀리하고 賤待할 것

이 아니라, 누구나 없어서는 아니되고 또 찾아가야 할 이 嚴然한 存在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事情을 알아주고 그 正體를 把握함으로써 즐거운 生活와 清潔한 環境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2.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原始人부터 宇宙人까지 大小를 莫論하고 用便行爲 自体는 大差가 없다고 보는데, 要是 그 處理方法이 時代에 따라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① 自然淨化時代(BC. 2100年 以前)

原始 地球上에 人蹟이 드물었을 때 人間은 自然에 順應, 蒼空을 바라보며, 草木과 對話하면서 山野나 河川에 放流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排泄된 것으로 말하면, 太陽에 乾燥되고 土地에 吸取되어 微生物로 分解되어 地球의 거름 役割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점점 人間이 集團生活를 하게 되고 都市가 形成되면서는 무척대고 아무 곳이나 放尿하고 보니 구린 냄새 때문에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해서 겨우 便所가 登場하지 않았을까 틀림없을 것이다.

② 放流時代(BC. 2100~로마時代)

一種의 水洗式 便所. 지금까지 發見된 最古의 便所는 古代 “스벨”文化의 中心地, 메소포타미아 地方의 “유프라테스” 河 下流, “파피로니아” 古都 “울” 또는 그 近方인 “널 알말”의 發掘에서 發見된 것. 이 時代의 便所가 왜 水洗式이나 하면, 現在의 水洗式과 같이 便器에 給排水設備은 없고 다만 排泄物을 生活 場所에서 河川이나 바다에 흘러 버렸기 때문. 中國에도 이 時代에 “圊”(水洗式便所)란 文字가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種類의 便所가 있었다는 것을 想像할 수 있다.

③ 不潔時代(로마帝國滅亡~르네상스)

이 時代는 文明의 進歩에 逆流하여 天然 便所時代로 거슬러 올라간 時期, 理由는 로마를 制霸한 民族이 水路를 利用할 能力이 없었던 모양, 暗黑政治時代에다 宗教적으로 엇갈린 뜻으로 衛生問題까지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 등등이다.

그러나 이 時代, 우리나라는 中國에서 “糞”이란 것이 傳來하여 日本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또 肥料로서의 利用價値가 알려진 것도 이때라 본다.

④ 汲取 投棄 時代(르네상스~19世紀)

暗黑時代가 지나 宗教解放이 된 “르네상스” 初期頃, “파리”에선 겨우 「各戶마다 便所를 設置할 것」이라고 慣習法에 들어가게 되었다. 또 17世紀初, “런던”에 汲取所가 나타나 便所에 備置된 可搬式 “통”을 빈것과 交換하게끔 되었다.

水洗便所는 17世紀부터 使用되었다고 하지만 本格的인 研究 考案은 18世紀末, 弁式便器가 世界最初가 된다.

⑤ 汚物處理時代(現代)

現代는 單位 便所時代라 할 수 있을까. 住居의 “서비스 섹션”으로 浴室, 洗面所, 洗濯 “에리아” 또한 부엌을 包含하며 “유닛”化로 進歩되고 있는 時代. 그럼으로 便所는 귀찮은 存在를 차츰 벗어나고 있고 處理法도 한층 高度의 能力을 要求하는 時代가 되었다.

⑥ 循環利用時代(未來)

歷史가 돌고 돈다 하지만 汚物도 돌고 도는 모양. 未來의 便所는, 더러운 排泄物을 어떻게 處理하는나 하는 것부터, 어떻게 利用하느냐가 問題. 그것도 家畜이나 魚類의 먹이 등 自然의 循環이 아니라 人工의 循環利用, 例컨데, 飛行機의 便所나 水源不足의 建物 등, 飛行機에서 糞尿中 尿는 脫臭 消毒되어서 便器의 洗滌에 使用되고 特히 莫大

한 給水가 必要로 하는 建物에서도, 尿나 汚水(浴室, 洗面)를 循環利用하게 된다. 멀지 않은 將來, 宇宙船의 話題로 尿가 飲料水로 化하게 될지…… 오래 살고 볼 것.

3. 便所, 便器의 傑作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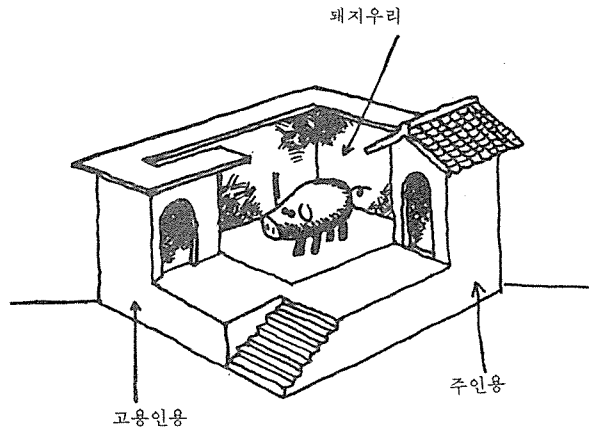
四·五千年의 悠久한 歷史를 가진 便所. 原始로부터 人間과 密着되어온 그 來歷으로 볼 때, 當然 그 主役인 便器도 時代에 따라 모양이나 裝置에 變化가 많았을 것.

① 돼지우리 便所

元來 文獻이 豊富한 中國. 便器도 그 例外는 아니고 많은 發達을 가지고 있는데, 그中 太古의 便所는 돼지를 養育하는 것이 本來의 目的. 一年 365日 돼지는 便所속에 가두어져, 사람곁서 料理하진 作品 뜨끈뜨끈하고 新新한 排泄物을 失禮하는 장치. 그 이름도 돼지便所, 當時 便所名도 “圊”라 하였다.

돼지나 소는 膽白質을 攝取하지 않아도 尿素만으로 통통하게 살이 찐다는 先人의 智慧에서 나온 아이디어. (20世紀 韓國 濟州道에 尚存)

그런데 이 돼지 便所는 中國의 古墳에서 發見된



돼지우리변소

것으로, 墓 속에 生前에 使用하던 器具를 함께 묻은 埋葬物(明器라 함) 속에 있었던 것이라 한다.

② 排泄하며 謁見

專制를 멋대로 하던 “루이” 王朝는 11世王. 「餘께서 어찌 몸소 便所에 行次하겠는가」라며 城中의

훌륭한 便所는 전혀 使用치 않고, 持參式 “스쓸” (即, 요강 같은 原理)로 불일 보신 것. “루이”王朝는 代代로 이 “스쓸”을 愛用하시게 된 것, 15世 時代에는 “모룩코” 가족을 바른 것, 或은 黑칠 에다, 具穀로 各國의 風景을 裝飾한 아주 豪華한 것이었다 한다.



“스쓸”便所

이와 같이 便器에 散財하신 御意는 威嚴을 높이 자는 氣分도 있고, 代代 王들이 이 “스쓸” 便器를 王座 옆에 나란히 놓고 謁見하신 것이다. 루이 14世의 例로 大使가 된 “포오란드”領主는 마치고 排泄 中の 14世에 接見할 수 있었던 것을 無上의 名譽로 삼았으며, 14世는 또 “맨태논”夫人과의 結婚을 重臣에게 發表할 때도 亦是 “스쓸”王座에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以後 그래도 지나친 것. 王의 威嚴을 그 르친다는 것을 깨다르셨는지 僞裝便器를 別로 使用하시게 된 것. (그림 參照) 이 책의 表題는 「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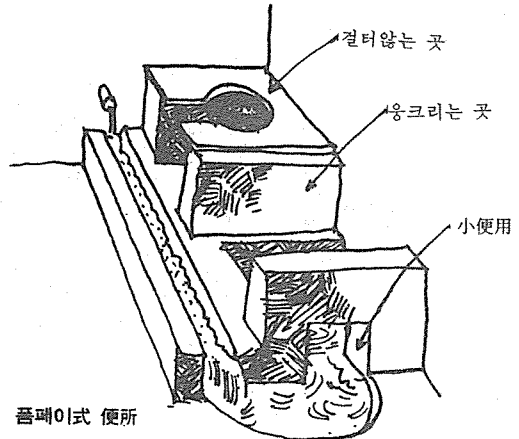
僞裝便所

蠻國旅行記」또는 「파리의 怪奇」로 되어 있어 表紙를 재키면 便器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아무튼 “루이”王朝의 諸皇帝께서는 늘 重臣이나 美妃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선지, 단 便所일 망정 孤獨하게는 있을 수 없는 柔弱한 분이었나 보다.

③ “폼페이”便所

大小 完備한 水洗式이라 할 수 있는 “폼페이”遺蹟의 便所, 古代 便所의 가장 發達한 로마 時代에는, 大別하여 4種類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 이 “라토니나”라는 것이 그야말로 文字 그대로 水洗式 衛生便所, 걸터앉고 싶거나, 웅크리고 싶거나, 또는 小便所 兼用이거나, 三樣式을 골고루 갖춘 本格派, 給排水의 管具를 設置하지 않았기 때문에 水洗式이라 불릴 수는 없지만, 如何든 公共 下水道가 있었다는 것으로 現代 어느나라 보다는 進歩한 면이 아닌가?



폼페이식 便所

④ 韓國의 “요강”

簡易 便器라 할까, 歷代 世界의 便器 傑作中の 하나라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요강”이다. 이는 “은들”, 장독대와 함께, 우리나라 特有物인 同時에 자랑거리? 이면서 두통거리, 用便하기에 멀고 구차스러운 것을 쉽게 解決하는 長點에 反하여 不潔하고 게으르고 非衛生的이라는 등, 좋지않은 點이 더 많은 것 같다. 大体로 直徑 30cm 항아리 모양 방 한구석에 놓고 밤에 小便을 하고 아침에 내다 버리는 것이 通例, 얼듯 보기에 모양도 過히 나쁘지 않아 잘못 食器로 利用하였든 外國入도 있었다는 넌센스의 主人公. 또 추운날에는 煖房을 돕는 役割까지 한다고 日本人들은 酷評을 하고 있다.

如何間 便所나 便器에 對한 外國과의 比較가 大同小異하다 할까? 다만 “요강”도 잘 다듬고 개량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다음 호에 계속)